

다산포럼



**장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치유의 숲 중 하나가 오대산의 선재길이다. 월정사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산 높고 물 깊어 유장할 뿐 아니라 숲의 청량감이 세상의 번뇌를 잊게 한다. 이 길의 끝자락에 '천고의 지혜'를 품은 도랑, 상원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필자는 6·25전쟁 당시 자신의 몸을 던져 유서 깊은 이 사찰의 법당을 구했던 노선사와 그를 흡묘한 한 장교의 이야기를 화두로 삼아 이 길을 오르내리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생각했다. '죄팔입망'의 경지를 보여 주고 사바세계를 떠난 그의 빈자리를 메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전쟁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많은 피해를 낳는다.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한국전쟁의 경우,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들이 대규모로 희생되었던 7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이 많이 발생했던 9월, 그리고 부역 혐의로 몰려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10월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독 잔인했던 시간들이었다.

민간인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어떠한가? 이들 중에서 정말 딱한 사람들이 '전쟁미망인'과 '전쟁고아'였

전쟁 유복자들이 부르는 이름, 아버지!

다. '전쟁미망인'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어색한 표현이지만, 그나마 민간인 희생자의 부인들에게는 이 말이 잘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 못지않게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다. 전쟁 유복자들이다. 동족상잔의 복세동 속에서도 그해 여름부터 이듬해 봄까지 새로운 생명들이 적지 않게 태어났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 태어난 유복자들이었다.

이들이 자신에게 꼭 있어야 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들과 그 어머니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나 사회는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니 돌볼 여유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에도 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책임의 일부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전쟁 유복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조국 근대화와 총력안보라는 표어로 점철된 권위주의 시기에 청년시절을 보냈던 이들에게 아버지를 찾을 기회를 주려는 커닝 연좌제라는 그물을 씌워 삶을 위협하기도 했다. 10여 년 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시기에 활동했던 유족들이 주로 전쟁 당시 세상 물정을 조금은 알았던 소년 소녀들이었다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시기에 활동하고 있는 유족들은 전쟁 기억이 별로 없는 세대들이다. 일흔을 넘긴 전쟁 유복자들은 충주·진주·영암·함평·완도 등 전국

에 산재한 한국전쟁유족회의 회장님들이 되었다.

이들에게 아버지는 잊힌 존재였을까? 아니다. 한국전쟁유족회가 주최하는 추모제나 유해 발굴 현장에 가 보면 어김없이 '불러보고 싶은 이름,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느끼게 된 전쟁 유복자들에게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운 존재가 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들의 사부곡과 추모사는 한국 현대사가 오랫동안 잊어 버리려고 했던 애달픈 세레나데이며, 사회적 양심을 깨우는 즉비 소리이기도 하다. 이들이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에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용산공원에 '통일과 화합의 숲'을 조성한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얼마 전에 한 유복자 회장님과 유족 한 분이 필자를 찾아와 이 숲에 작은 추모비를 세워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들은 천만 명의 시민이 사는 수도 서울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추모비 하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뿐 아니라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도 함께 비는 화해의 위령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침이 장소가 전쟁기념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된다면 그 의미는 작지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들의 염원을 담아 화해와 치유의 추모비가 천년의 지혜처럼 세워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필의 향기

김연경 선수의 사투리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웃이자 정신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지역 인기 프로그램이 '남도 지오그래피'이다.남도 사람들의 진솔한 삶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주인공은 어른신이나 풍속보다 전라도 사투리가 아닐까 싶다. 언어는 의사전달 기능 못지않게 지역 사람들의 사유와 정서를 담아낸다.

올림픽 배구 경기를 보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다른 종목들이 예상과 달리 지리멸렬한데, 여자 배구만은 달랐다. 신이 났다. 폴 세트 끝에 승리하였을 때, 두 주먹을 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얼마 후, 녹초가 된 김연경 선수의 말을 듣고 같은 포랑새비를 만난 것만큼 어지럽증이 일었다.

"아따 죽겠다잉. 한 경기 한 경기 피가 말린다 와~" 경기를 끝내고 물을 마시며 속 시원하게 털어놓은 속마음, 힘들었다는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졌고, 어디서 익숙하게 들었던 소리, 고향 사투리였다.

그 순간, 애써 외면해왔던 살덩어리 같은 아릿한 아픔이 되살아났다. 동시에 그래도 끌어안고 가야 하지 않는 나는 자각, 눈물이 땀 났었다. 애증이 묻어난 기묘한...

언어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하는 모양이다. 전라도의 슬픔이 담긴 사투리.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 짓밟고 또 몽갓 곳,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전라도 사람처럼 강해지고 역세진 된소리가 발달한 언어, 교묘하게 조폭들이나 식모와 같은 특수 계층 언어처럼 확대당한 토박이말, 한 곳을 자근자근 짓밟아서 모두 깨감

과 반사 이익을 얻었던 집단 광기 시대의 희생양.

속적 일본을 꺾고, 연이어 터키와 폴 세트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4강에 안착했을 때, 우리나라도 동양인도 할 수 있다고 나는 환호작렬했다. 양 팀 통틀어 최다인 28득점으로 한국을 승리로 이끈 김연경 선수는 경기 후, 환하게 웃으면서 구수한 사투리로 8강전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아따 죽겠다잉. 한 경기 한 경기 피가 말린다 와~" '아따'나 '오매'는 반갑거나 즐거울 때, 아무 때나 쓰는 전라도 감탄사다. 죽겠다는 말도 힘들다는 애교 넘치는 말이다.

제주방언이나 함경도 방언을 우리가 잘 알 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전라도 방언은 전라도 사람끼리 서로 통하는 마법같이 신비로운 언어이다. 방언은 향토성이 생명이다. 그런 언어들을 어디 박물관이라도 두고 보존할 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무형이라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지키지 않으면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젊은 선수가 극적인 순간 생생하게 되살린 것이다.

만약 그 소녀가 서울말로 인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훨씬 우아하게 보였을까? 품(品)은 입이 세 개가 모여 서 된 단어이니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한다. 그 사람이 쓰는 사투리나 표준어가 품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왜곡하고 그릇된 시선이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장상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잘 지내자는 말, 그 여학생의 정감 있는 마음과 억양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메타 가든'으로의 초대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 등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다. 가상현실(VR: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인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 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처럼 친구를 만나 놀고, 업무를 보고 소비를 하는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증강현실 아바타 앱 서비스인 네이버 SNS 플랫폼 '제페토'(ZEPETO)다. 브랜드 홍보나 발표회, 시연회 등 각종 행사를 제페토에서 진행해 전 세계의 이용자와 소통하고 여러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급부상하는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메타 가든'은 '메타버스'에서 '메타'의 의미를 끌어와 현대미술에 접목해 '가상, 추상'적 테크놀로지 예술 정원을 구현한 전시다. 전시에 참여하는 11명의 작가들은 예술이 품은 기술과 감성, 즉 AI, 빅데이터 등 일종의 기술 문명이 품은 미적 상상력을 시각화하여 전시 공간에 미래의 정원을 선사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여러 형태로 인간의 감

정에 영향을 미치며 감각을 자극하고, 빠른 속도로 세상 및 사람들과 소통 가능한 미디어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게 한다. 이는 현대미술의 영역에도 밀접하게 응용되어 작가(화가) 1인이 창조물이 아닌 새로운 융복합 예술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메타 가든'전은 초연결, 초지능화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이 현대미술의 영역에 어떻게 응용되어 융복합 예술로 탄생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인간의 거대한 상상력을 현재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것이 가상현실의 시작점일 수 있다.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가상현실, 즉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상상들이 메타버스 속 가상현실에서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곁에 더욱 밀접하게 함께할 메타버스 속 인간 활동은 사이버공간처럼 헛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질적 조건, 인간관계, 사회 영향력과 직접 연결되어 곧 가상이 실제가 되는 것이다. 상상력의 총전소인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메타 가든'전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 인지하고 비대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물리적 소통의 감각을 가상의 테크놀로지 예술 정원에서 체험할 수 있다. 나아가 전시를 준비한 기획자로서 비대면 관계 속에서 미술관에서 대면으로 만나는 '메타 가든', 시공간을 초월해 수많은 세계인들이 관람 가능한 메타버스 속 '메타 가든' 구현을 꿈꾸어 본다.

社說

중원에서 기선 제압 이재명 대세론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의 충청(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 지사가 압승을 거둬으로써 강고한 대세론을 형성하며 대선 티켓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하지만 큰 격차로 일격을 당한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전체적인 경선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두 지역 누적 투표율에서 이 지사는 과반을 넘긴 54.72%를 기록한 반면 이 전 대표는 28.19%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사가 앞설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조직력 우위를 바탕으로 엇비슷한 결과를 기대했던 이 전 대표 진영에서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당장이 전 대표가 어제 예정되었던 일정을 거의 취소한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이번 첫 경선에서는 특히 50% 과반수 득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차후 결선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를 가능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과반 득표였기 때문이다. 결과는 이 지사가 자신도 몰랐을 만큼의 거로 두 배에 가까운 과반 득표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으로써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중원에서 선방

한 뒤 호남으로 넘어가려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제 앞으로의 관련 포인트는 이번 경선 결과가 호남 지역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있을 대구·경북(11일), 강원 지역 경선(12일)은 물론 1차 선거인단 투표(12일)에서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대세론을 확산시킨 뒤 호남 지역 경선에서 사실상 판세를 결정짓는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대구·경북 및 강원 지역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와 격차를 좁힌 뒤, 광주·전남(25일) 전북(26일) 등 호남 지역 경선에서 역전 드라마를 써 나간다는 방침이다.

결국 추석 이후 펼쳐지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종 판세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남은 전통적으로 선거 때마다 '될 사람'을 밀어 주자는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으로써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중원에서 선방

4수원지 보호구역 해제 난개발 방지책 있다

광주시와 북구가 무등산 자락의 제4수원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 및 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해 온 원수(原水)에서 흙·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기준치가 넘게 검출되면서 추진됐다. 해제가 결정되면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개발 행위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려스러운 것은 보호구역 중 사유지가 절반 이상에 달한다는 점이다.

물론 무등산 향로봉에서 발원한 석곡천을 막아 조성한 제4수원지 일대는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일

정 규모의 1·2종 근린생활 시설 건축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그동안 억눌렸던 개발 욕구가 분출할 경우 음식점이나 펜션은 물론 고급 주택단지까지 개발 광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지자체가 무등산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행정 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광주시와 북구는 보호구역 해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양 지자체는 제4수원지가 상수원으로 쓰 기능을 상실했다 해도 자연 경관이 뛰어난 국립공원 지역 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김삿갓 시비 등이 자리한 명소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쉼터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명확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주IC에서 멀지 않은 전북 원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마을은 조선 최초의 천주교 신자 마을이다. '초남이 성지' 입구에는 '호남 천주교 발상지 1784년'이라 새겨진 돌비석이 있다. 1784년은 신유박해(1801년) 때 순교한 유헡검(세례명: 아우구스티노, 1756~1801)이 조선 최초의 영세자이자 천주교회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승훈(베드로)으로부터 서울에서 세례를 받은 해를 뜻한다.

유헡검은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호남의 사도'로 불린다. 또한 중국인 주

을 끈다.

18~19세기 초에 조선 지식인을 비롯해 중인과 천민들이 천주교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유는 뭘까? 재야 역사학자였던 고(故) 이이화 선생은 '한국사 이야기'에서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한다. 신문화 수용 차원의 민중종교 운동, 중인과 양인 중심의 지도층 성격, 성경의 한글 번역(신도 대중화에 기여), 천주교의 평등사상과 새로운 가치관 등이 그것이다.

신해박해(1791년)와 신유박해 때 순교한 천주교 순교자 3인

'초남이 성지'

(윤지충·권상연·윤지현)의 여행가 최근 '초남이 성지' 인근 바우배기에서 발견했다. 바우배기에는 유헡검·신회 부부의 묘소가 1914년 전주 치명자산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있었다고 한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부장유물(지석)과 DNA 분석을 통해 순교자의 유해임을 확인했다. 이번 순교자들의 유해 발굴 소식은 200여 년 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거룩한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고



**김민경**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오늘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 경제 전반에 융합되어 삶과 일의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리의 삶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첨단기술과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첨단 시대에 대해 열망하고 기대한다.

이런 상황 아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빠르게 비대면의 시대로 이끌었다. 코로나 대응행은 우리에게 온라인 비대면 현실을 강요하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기술을 상징하는 새롭고 강력한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용어를 급부상시켰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작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여기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말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